

주차장 안짓고 단속에만 열 올리는 구청들

광주 5개 구청 실적 위주 단속...10여년간 과태료만 1200억
공영주차장 줄이고 과태료 수입으로 CCTV·인력만 늘려
시민들 불만...“실적 위주 단속 지양하고 주차장 확충부터”

광주지역 일선 구청들이 공영 주차장 확충 등은 뒷전인 채 불법 주·정차 단속에만 열을 올리면서 지난 10여년 동안 1200억원 가까운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놓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차량흐름과 사고 유발 우려가 있는 불법 주·정차량을 강력히 단속해야겠지만, 주차장 확충과 계도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없는 ‘실적중심’의 단속 방식은 지양해야한다는 여론이 높다.

특히 다 자치구에 비해 두배 이상 과태료를 부과한 서구는 시민이 낸 과태료로 정작 늘려야할 공영주차장은 줄인 반면 단속용 CCTV와 단속 인력을 대폭 늘린 것으로 알려져 지역민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30일 광주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광주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 5개 구에서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주정차 단속 건수는 308만5000여건으로 집계됐다. 5개 자치구의 과태료 부과금액도 총 1181억700만원 달했다.

자치구별로 서구가 101만여건으로 전체 주정차 단속 건수의 32%를 차지하는 등 가장 많은 단속 실적을 올렸으며 광산구 73만7000여건, 북구 69만4000여건, 남구 32만4000여건, 동구 32만여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 서구와 동구의 단속 실적은 무려 69만건이나 차이가 났다.

주정차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역시 서구가 351억44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광산구 296억6700여만원으로, 북구 278억1200여만원, 남구 129억7700여만원, 동구 125억700여만원 순이었다.

특히 서구의 주정차에 대한 단속 건수는 2015년을 기점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는 지난 2014년 10만4000건에서

2015년 21만1000건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으며, 2016년에도 24만2000건을 기록했다.

서구는 지난해에만 과태료로 76억4400만원을 부과했다. 같은 기간 광산구 12만7000여건 45억원, 북구 8만3000여건 33억4000여만원, 남구 7만3000여건 24억5700여만원, 동구 6만4000여건 25억800여만원 등이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수입은 통상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의해 주차장 관련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각 자치구의 공영주차장수 확충 추이를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 이번 자료를 분석·제공한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명이었다.

실제 지난해 7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서구의 경우 올해 공영 주차장 면수는 1088면으로 오히려 지난해 1263면보다 175면이나 줄었다.

4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광산구 역시 지난해 1241면에서 올해는 990면으로 줄었다. 남구의 경우도 지난해보다 1264면이나 줄어든 2364면이다.

반면 25억800만원을 부과한 동구는 지난해보다 414면이나 늘어 3200면을 확보했으며, 33억4000만원을 부과한 북구는 지난해보다 157개를 확보해 1650개의 주차장수를 기록했다.

과태료 수입이 가장 낮은 동구가 주차장 면수를 가장 많이 확보한 반면 과태료 부과액이 가장 많은 서구는 지난해보다 주차면이 줄었다.

김성근 서구청 교통과장은 이에 대해 “지난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주요 경기가 서구에서 열렸을 당시 주정차 단속 장비를 대폭 확충했고 현재도 다른 자치구보다 단속요원이 많다”면서 “시민



광주지역 5개 구청이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지난 10여년 동안 1200억원 가까운 과태료를 부과했다. 광주시 동구 황금동 일대 도로에 설치된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들이 낸 과태료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와 단속인력을 늘리는 데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기준 광주시에 등록된 차

량은 총 64만2414대로, 북구(18만4811대), 광산구(18만4588대), 서구(14만9459대), 남구(8만6541대), 동구(3만7015대) 순이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여수행 무궁화호 열차 쫓던어리 ‘날벼락’

유리창 깨져 승객 7명 부상

여수를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에 쫓던어리가 날아와 유리창이 깨지면서 승객들이 파편에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오후 1시 20분께 서울 용산에서 출발한 여수행 무궁화호 열차가 오후 1시 50분께 군포에서 의왕 사이를 운행하던 중 쫓던어리가 날아와 유리(가로 2m, 세로 1m) 1장이 깨졌다. 쫓던어리는 가로·세로 20cm정도 되는 크기로 10kg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열차 안에 타고 있던 승객 7명이 유리파편에 맞아 다쳤다. 치료가 급한 부상자 5명은 열차가 수원역에 비상 정차한 사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열차가 군포에서 의왕을 지나는 사이 사고가 발생했고, 객실에서 발견된 물체는 가정용 전화기 크기 사각 모양의 쫓던어리였다”라며 “이 물체가 어디에 쓰이는지 조사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사고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이스피싱 피해 4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걸려 수백만원대 금전 피해를 본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30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6시20분께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한 원룸에서 임모(여·43)씨가 숨져 있는 것을 직장 동료 은모(여·54)씨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은씨는 전날 임씨가 출근을 하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아 집으로 찾아가던 중 발견했다. 집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직장 동료에게 “그동안 고맙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 결과 임씨는 지난 1월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유출됐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를 받고 조카 명의 계좌로 돈을 이동시킨 후 8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유출돼 조카도 금전적 피해를 입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여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어렵게 살아가는 김씨는 최근 보이스피싱을 당한 데다 평소 가깝게 지냈던 조카마저 피해를 입게 되자, 괴로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음주차량 고의로 들이받고 “돈 내놔”

목격자 제보로 택시기사 ‘딱 걸렸네’

음주 신고하려던 시민에 들통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 합의금을 요구한 택시기사가 목격자의 제보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30일 고의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특수손괴)로 고모(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3시 40분께 광주시 서구 풍암동의 교차로의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택시로 이모(32)씨의 승용차 뒤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영업용 택시기사인 고씨는 이날 파란불로 신호가 바뀌었으나 1차로에서 있던 차량이 아무런 움직임이 없자 음주운전 차량으로 판단,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1차로에서 2차로 변경한 뒤 이씨 차량의 오른쪽 뒤범퍼를 고의로 2차례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씨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0.121%로 면허취소 상태였던 이씨에게 현장에서 수리비 등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요구했고, 이씨와 250만원에 합의하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날 사고 현장에서 택시기사인 고씨의 범행 순간을 목격한 한 시민이 지구대에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고씨의 범행은 탄로났다.

이 시민은 택시기사인 고씨가 오전 1차로에서 정차중인 이씨의 차량을 발견한 뒤 음주운전 의심차량으로 112에 신고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고씨가 고의로 사고를 내는 장면도 직접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지인들과 옆주동에서 술을 마신 이씨가 백운동에 있는 집으로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 보면 사기의 타깃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동창생 집단 괴롭힘 고교생 2명 퇴학

2명 전학 등 중징계

중학교 동창생을 장기간 집단으로 괴롭힌 고교생들<광주일보 7월21일자 6면>에게 퇴학과 전학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지난 28일 광주교육청에 따르면 전남 시교육청 소회의실에서 광주·전남 지역 8개 고등학교 공동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열고 중학교 동창을 집단으로 괴롭힌 12명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이날 학폭위에는 폭력 가담 학생의 소속 8개 학교에서 모두 10명의 위원과 법률 전문가 1명이 참석했다.

학폭위는 폭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정도가 지나친 2명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또 이들과 함께 폭력을 주도한 2

명에게는 전학을, 1명에게 출석정지 10일과 함께 특별교육 이수과 심리치료 조치를 각각 조치했다. 폭력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은 1명에게 학교에서의 5일 동안 20시간 봉사, 다른 1명에게 특별교육 이수 5일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들 7명의 가해자에게는 공동으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도 함께 내려졌다.

사회적관계망(SNS)에 올린 사진을 보고 단순히 댓글을 남기는 등의 행위를 한 나머지 5명은 무혐의 처분됐다.

이들 학생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광산구 일대의 모텔 등에서 중학교 동창 A군에게 웃을 벗기고 추행하거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등 집단 괴롭힘을 한 혐의로 학폭위에 넘겨졌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내연녀 집 엿보려 우유 투입구에 라이터 켜다 불낸 60대



○...내연녀의 집을 엿보기 위해 우유 투입구 앞에서 라이터를 켜다 불을 낸 60대 남성이 경찰서형.

○...30일 인천 중부경찰에 따르면 A(60)씨는 지난 28일 인천시 동구에 있는 내연녀 B(62)씨의 빌라를 찾아가 현관문에 있는 우유 투입구를 통해 남자의 신발 등이 있는 지 보기 위해 라이터를

켜다가 플라스틱으로 된 투입구에 불을 냈다는 것.

○...투입구에 불이 났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체포한 경찰은 “A씨를 일단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체포했지만 실수로 불을 낸 것으로 보여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주거 침입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 /연합뉴스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주)

광주,전라 추천물건

치평동 중심상가

일반물건



토지 191평
건물 770평

매매가 **53억**

동구 금남로2가 중심상가

경매물건



토지 488평
건물 6008평

감정가 **25,143,000,000**
최저가 **17,600,000,000**

【법원 경매/공매】

토 지	일 반 물 건
▶나주 봉황면 황룡리 생산관리지역 과수원 반암마을인근 토지 3251평 감정가 270,000,000 최저가 216,000,000	▶북구 운암동 중흥아파트인근 수익형빌라 토지 110평 건물 124평 매매가 520,000,000
▶신안군 증도면 방축리 계획관리지역 큰도로정 해안가 토지 1200평 감정가 103,000,000 최저가 103,000,000	▶담양군 담양읍 로터리 중심상가 대지 144평 건물 2층 매매가 11억
	▶서구 중심상가 4층건물 현재 상업중 토지 133평 건물면적 90평 매매가 23억
	▶서구 풍암동 중심상가 근린시설 토지 400평 건물면적 100평 매매가 17억
	▶서구 치평동 근린시설 현재 상업중 토지 120평 건물 614평 매매가 38억
	▶서구 치평동 소각장인근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지 377평 타입중 가능 매매가 17억
	▶서구 마북동 도시지역 도시철도공사 뒤편 대지 508평 건물 302평 매매가 38억 조정가능
	▶광산구 비아동 아파트자리 토지 약 2000평 매매가 평당 280만원
	▶북구 신안동 주상복합상가 전남대점문근 (1층, 2천) 건물 32평 매매가 3억5천 (용자 2억5천, 보증금5천, 월143만원)
	▶담양군 대덕면 장산리 전원주택 최적지 유물관인근 토지 359평 평당 40만원
	▶담양군 남면 경산리 전원주택지 1층일반주거지역 무등산자락 토지 456평 3억 조정가능
	▶태양광가능 평당 2만원 강진 신전면 수양리 임야
	▶상무지구 중심상권 커피전문점 6층건물 1층 50평 5천만원 월350백 시설비 9천 조정가능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11필지 자연녹지 택지조성 완료 대나무 생태공원조성사업 2540평 5억 5천만원
	▶나주 금천면 오강리 자연녹지 과수원 1600평 4억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